

# 第88回 國 會 會 議 錄 開會式

大韓民國國會事務處

1973年 9月 20日 (木) 午前 10時 開式

## 第88回國會(定期會)開會式順

1. 開式
1. 國旗에 대한 敬禮
1. 愛國歌 齊唱
1. 殉國先烈 및 戰歿護國勇士를 위한 默念
1. 開會辭
1. 閉式

(司會 渉外室長 趙琮鉉)

(10時5分 開式)

○渉外室長 趙琮鉉 지금으로부터 第88回國會 定期會 開會式을 舉行하겠습니다.

먼저 國旗에 대한 敬禮가 있겠습니다.  
壇上의 國旗를 향하여 起立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起立)

(國旗에 대한 敬禮)

다음은 愛國歌 齊唱이 있겠습니다.  
愛國歌 齊唱은 錄音前奏에 따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愛國歌齊唱)

다음은 殉國先烈 및 戰歿護國勇士를 위한 默念이 있겠습니다.

(一同默念)

一同 着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議長님의 開會辭가 있겠습니다.

○議長 丁一權 尊敬하는 閔復基 大法院長 閣下 金鍾泌 國務總理를 비롯한 國務委員 여러분 그리고 親愛하는 議員 여러분!

本人은 오늘 第9代國會에 들어서 처음 열리는 定期國會를 맞아 議員 여러분들과 자리를 같이하고 앞으로 3個月에 달하는 會期동안 새해 豫算案을 비롯한 主要 國事를 다루게 되었음을 眞實로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번 定期國會는 議會制度의 效率의인 運營을 期하도록 한 10月維新 이후 처음 열

린다는데서 關心을 모을뿐 아니라 UN總會에서 南北韓이 자리를 같이 하는등 國內外 情勢가 激動하는 重大한 時期에 開會된다는데 있어 그 意義가 매우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親愛하는 議員 여러분!

定期國會는 政府가 提出한 새해 豫算案을 審議하고 이를 成立시켜야 하는 만큼 立法府에 있어서는 가장 重要한 會期라고 하겠습니다.

過去에는 豫算案 審議에 들어가기 앞서 國政監查를 實施함으로써 새해 豫算案 成立을 위한 事前 知識을 얻고 이에 관한 資料를 蒐集할수 있었으나 今年度부터는 새國會法에 따라 國政監查 制度가 廢止되었으므로 議員 여러분께서는 豫算案 審議에 있어 倍前의 研究와 努力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政府의 豫算은 國民全體의 生活과 直結되는 것인 만큼 우리는 豫算案을 審議함에 있어 自己가 所屬한 交涉團體나 또는 自身의 出身地域에 執着한 小我的인 立場을 버리고 國家의 發展과 國民全體의 福利를 위한 大局의 見地에서 眞摯하게 이를 다루어야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國會固有의 權能에 屬하는 豫算案 審議에 있어 國民의 信賴와 期待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國民은 어제보다 오늘을 오늘보다 내일을 더 잘 살기 願하고 또 더 잘 살려고 努力하고 있습니다.

來日에 期待하고 있는 國民들의 無限한 希望과 期待가 바로 議員 여러분들의 審議를 기다리고 있는 새해 豫算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希望과 慾求是 어떻게 하면 效果的으로 豫算을 作成하고 보다 誠實하게 運營하느냐에 따라 充足될 수도 있고 反對로 空虛感을 안겨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새해 豫算案은 80年代初의 經濟成長目標인 “100億「달러」輸出과 一人當 1,000「달러」의 國民所得”을 達成하는데 있어 그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目標達成을 위해 政府는 74年度の 豫算案을 編成함에 있어 새마을 事業을 主軸으로 하는 農漁村 開發과 重化學 工業의 集中的인 建設을 經濟施策의 主要 指針으로 삼고 있습니다.

當面한 國內外的 經濟動向을 살펴볼 때 世界的인 經濟趨勢는 景氣上昇으로 因해 資金需要가 急增했으며 이에 接쳐 資源不足 등에 따른 原資材 騰貴要因이 加勢할 憂慮가 있는바 이같은 現狀은 結果的으로 經濟全般에 걸쳐 至大한 影響을 줄 것이 展望되고 있습니다.

議員 여러분께서는 尨大한 豫算案을 審議하는 過程에 있어서 當面한 經濟趨勢를 勘案하여 非效率的인 資金使用이 있다면 이를 止揚하도록 하고 財政「인플레이」要因이 發見된다면 이를 除去할 수 있도록 格別히 留意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數年동안 擴大再生産을 거듭해 왔고 눈부신 高度成長을 이룩해 왔습니다.

이같은 經濟的 發展과 安定을 계속하기 위해서 國民들은 消費보다 貯蓄을 奢侈나 浪費보다 耐乏을 앞세워야 할 것이며 特히 議員 여러분께서는 이 點에 있어 先導的인 役割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議員 여러분께서는 무거운 責任感과 冷徹한 良識을 最大限 發揮하여 國民民福의 增進을 渴求하는 民意를 正確히 把握하고 이

번 豫算案 審議過程을 통해 이를 忠實히 代辯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한편 豫算案을 編成한 政府의 關係當局者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豫算案 審議에 臨하는 國會議員 個人의 言行은 國民의 意思를 代辯한다는 事實을 銘心해야 할 것이며 國會에서 成立된 豫算은 誠實히 執行되어야 할 것입니다.

政府는 來年度 經濟政策의 二大支柱인 “새마을事業”과 “重化學工業 建設”에 있어 所期の 目標을 達成할 수 있도록 總力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産業政策의 構造的 矛盾이 發見된다면 果敢히 이를 是正함으로써 效率的인 豫算 執行을 이룩해야 할 것입니다.

親愛하는 議員 여러분!

本人이 序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이야말로 國內外 情勢가 激動하는 重大한 時期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東西 解氷「무드」를 契機로 國際外交는 오직 國家利益만을 鐵則으로 삼게끔 冷酷해졌으며 이같은 狀況 속에서 數多한 나라들은 自國의 安保問題를 놓고 活路를 摸索하기에 汲汲하고 있는 實情입니다.

議員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國際的 大勢에 副應하여 이 機會에 民族的 念願인 祖國統一을 이 땅에 具現시키기 위해 北韓側에 南北會談을 提議했으며 韓半島에서 緊張을 緩和하고 恒久的 平和統一을 기필코 達成키 위해 國家的 使命意識을 갖고 이 會談에 온갖 努力을 傾注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北韓側은 지난 6月23日 우리 政府가 世界萬邦에 宣言한 “平和統一 外交政策에 關한 特別聲明”을 契機로 밖으로는 自己들의 國際的 地位가 孤立되고 안으로는 主觀的 統一戰略이 破綻에 이르게 되자 一方的으로 南北對話를 決裂의 危機로 몰아 넣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平和統一 外交政策”은 平和의 定着만을 指向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共產圈과의 相互開放 促進에 結付시킴으로써 統一與件을 形成함에 있어 漸進的인 면서도 가장 合理的인 것이었습니다.

幻想과 獨善에 사로잡혀 現實을 客觀的으로 分析하지 못하고 있는 北韓 當局者들의

統一戰略은 民族의 將來를 위해서라도 不幸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過去 北韓當局이 저지른 非人道的이고 非民族的인 一切의 行爲를 不問에 불이고 오직 祖國의 平和統一이라는 民族的 召命앞에 南北韓의 同時 UN加入을 提唱했고 南北間의 漸進的인 交流를 提議했으나 저들은 이를 拒否함으로써 聖스러운 統一課業을 하나의 政治遊戯로 利用해 왔음이 分明하게 되었습니다.

敎條主義者들의 저같은 策動을 볼때 우리는 다시금 安保體制의 再整備가 不可避하다는 事實을 實感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親愛하는 議員여러분!

이럴때일수록 우리는 團合된 힘으로 國力을 培養하고 總和를 이룩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政府의 外交政策을 뒷받침하고 이를 支援하기 위해 우리 國會는 지난 閉會期間동안 活潑한 海外活動을 展開하여 크게 實效를 거둔바 있습니다.

9代國會에 들어서 이미 構成되어 있는 韓·英 韓·佛 韓·獨 韓·土 議員協會가 새陣容을 갖추어 活潑한 活動을 展開하고 있으며 議員團으로 이루어진 數個班이 美國 「카나다」 「뉴질랜드」 東南亞 等地를 巡訪하여 議會 相互間의 紐帶를 鞏固히 한바 있습니다.

오는 10月2日에는 우리 國會가 主權하는 第9次 亞細亞議員聯盟 總會가 서울에서 開催되어 百餘名의 友邦 議會指導者들이 자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같은 機會에 우리는 對話와 討論을 통해 議會政治의 成熟度를 對內外에 實證하고 能率과 良識으로 體制의 優位性을 確認시켜야 할 것입니다.

議會는 民主政治의 바탕이 核心體입니다.

主權者인 國民은 國會가 圓滑히 運營되는 곳에서 主權者의 權利를 行使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문에 民主政治는 바로 議會政治라는 原則이 通用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國事를 論議하는 過程에 있어 서로 主張을 달리한다 해도 多樣한 國民의 意思를 最大限 國政에 反映시키는 것이 本人이나 議員여러분에게 주어진 使命임

을 自覺하고 相互 異見이 있다면 討論過程을 통해 이를 充分히 濾過시켜 하나의 融合된 國民意思로 만들어 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만이 우리는 議會政治의 참다운 長點과 底力을 誇示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本人은 歷史的 轉換點에 處한 우리 國會가 法을 百分活用하여 時間과 精力浪費를 避하고 定期國會에 負荷된 任務를 無難히 完遂해 줄 것을 希望하면서 議員여러분의 健康과 幸福을 비는 바입니다.

感謝합니다.

○涉外室長 趙琮鉉 이상으로써 第88回國會 定期會 開會式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10時20分 閉式)